

제 4 교시

# Near the Pacific Equator

성명

수험 번호

안녕하세요. 스바나입니다.  
2020 수능 지구과학 I 을 위한  
찐막 칼럼,  
<Near the Pacific Equator>  
틀고 왔습니다!

2020.9월 평가원 19번 문항에서  
낮선 방식의 표현이 사용된 자료가 등장하면서  
엘니뇨&라니냐 자료 해석을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지  
은근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거 그냥 태평양 적도 부근 보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해도 대부분의 문항의 답은 나오니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로만 하면  
반드시 찐찐한 문항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FACT와 KICE의 문항으로  
그 찐찐함을 깔끔히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엘니뇨&라니냐 문항만 다를 예정입니다.  
수능에서는  
북/남태평양 해류에 관한 문항이 출제될 경우,  
엘니뇨&라니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 <Table of contents>

### 1. FACT로 기준 잡기

### 2. KICE로 확인하기 + $\alpha$

# 2 Near the Pacific Equator

## 1. FACT로 기준잡기

엘니뇨&라니냐 문항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자료를 해석해내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때

- ① 어디를 볼 것인가?
  - ② 얻은 정보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2016 엘니뇨 백서』(2017년 1월 31일 기상청 발행)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원본을 열람하실 수 있는 곳은

<https://www.climate.go.kr/home/bbs/view.php?bname=publicity&vcode=5839> 입니다.

기준을 언급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엘니뇨의 정의를 반대로 하면 라니냐의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볼 때 “엘니뇨인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라니냐의 경우 엘니뇨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되나 다만 온도의 기준을 음의 해수면 온도 편차(섭씨 -0.5 이하)를 따른다.”

따라서 엘니뇨에 대해서 정리가 완벽하다면 라니냐도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엘니뇨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엘니뇨의 발생과 소멸 시기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각각 정의가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 기상청은 3개월 이동 평균된 NINO3.4 지수값이 섭씨 0.5이상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를 엘니뇨로 정의한다.”

NINO3.4 지수값? 이런거 배운 적 없는데? 하지만 살펴보면 사실 우리도 익히 사용하고 있던 녀석입니다.

“NINO3.4지수는 열대 동태평양 지역(120°W-170°W, 5°N-5°N)에서 평균된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로 정의된다.”

온도 아노말리...?

“어느 특정지역에서 기온, 강수량 또는 다른 기상요소와 같은 고유요소가 장기간의 평균값으로부터 변화하는 차이값을 말한다.”

-아노말리 [anomaly] (지구과학사전, 2009. 8.30., (사)한국지구과학회)

그렇습니다.

항상 문항에 등장하던 “(관측 OO - 평균 OO)” 이게 아노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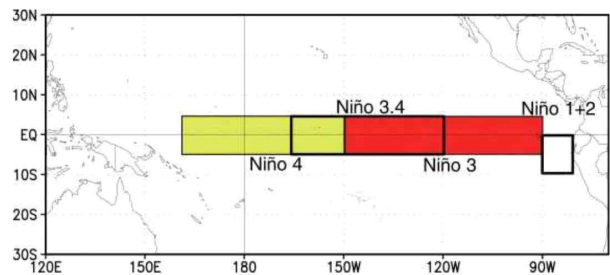
이제 앞에 나왔던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엘니뇨는 120°W-170°W, 5°N-5°N에서 (관측 해수면 온도 - 평균 해수면 온도)가 0.5 °C 이상으로 5개월간 지속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5개월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속 시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엘니뇨 에피소드, 6개월 이내면 엘니뇨 상태라고 구분하는데 이런 구분까지 고교과정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능 지구과학 I 문항에서는 대략 [140°W - 남아메리카, 5°N - 5°S]에서 편차가 0.5°C 이상이면 엘니뇨라고 판단합니다. 이외는 라니냐, 평상시로 판단하면 됩니다. (라니냐 vs 평상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NINO에 대해 더 살펴보면



위와 같이 엘니뇨 감시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0°W - 남아메리카로 판단 기준을 잡으려 했는데 KICE문항의 경도 표시를 살펴보니 150°W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140°W - 남아메리카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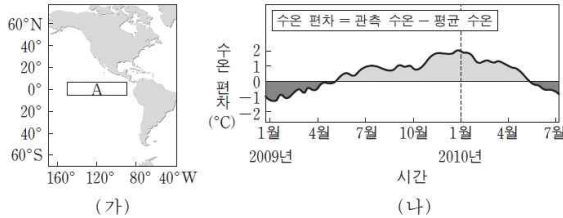
이제 문항을 살펴면서 설명을 이어가보려 합니다.

# Near the Pacific Equator 3

## 2. KICE로 확인하기 + $\alpha$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5. 그림 (가)는 엘니뇨 감시 해역 A를, (나)는 A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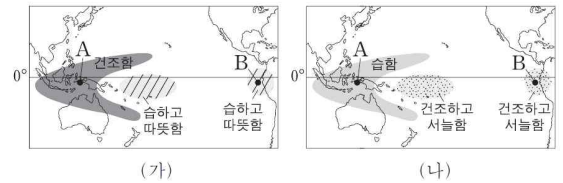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2010년 1월의 A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 ㄴ. 고온 다습하고 강수량이 많아졌다.
  - ㄷ. 용승 현상이 강해졌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 개정 교과과정의 KICE 첫 엘니뇨 문항입니다.  
역시 첫 문항은 “엘니뇨 감시 해역”으로 시작합니다.  
A구역은 NINO3 정도로 판단됩니다. 수온 편차도 0.5°C를 넘긴 채 5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정보까지 실려 있네요.  
엘니뇨의 정의에 입각한 정보인 것이죠.  
cf) 2009년 기상청 FAQ에서는 NINO3을 엘니뇨 감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15.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라니냐와 엘니뇨 시기의 기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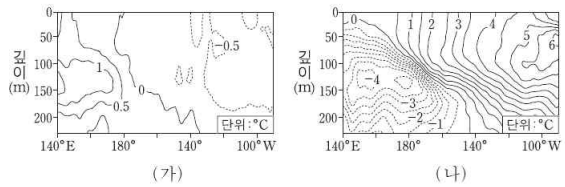


- (가)와 (나) 시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해역의 강수량은 (가)일 때 더 많다.
  - ② 남적도 해류는 (나)일 때 더 강하다.
  - ③ A해역의 상승 기류는 (가)일 때 더 강하다.
  - ④ B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나)일 때 더 두껍다.
  - ⑤ A와 B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는 (가)일 때 더 크다.

- ✓ 엘니뇨&라니냐에 의한 기후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는 남방진동 현상과 엘니뇨를 엮은 ENSO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냥 아래 정도로 알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 ① 기본적으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기온/해수면 높이가 높다.
  - ② 저기압은 표층 수온이 높은 곳에서 발달한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17번

17.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관측 수온-평균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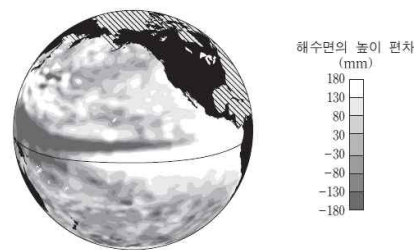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 ㄴ.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 ㄷ.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가 감소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를 제시했지만 해수면만 보면 됩니다.  
반드시 먼저 엘니뇨를 찾다고 했습니다.  
(가)는 -0.5°C가 엘니뇨 감시 구역에 있어서 라니냐일 수도 있지만 역시 평상시와 구분하기 모호합니다.  
그래서 문항도 결국 (나)의 특징만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EBS 해설도 (가)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니뇨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항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13번

13. 그림은 어느 시기에 위성에서 관측한 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편차(관측 높이-평년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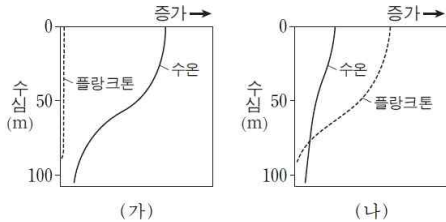
- 평년과 비교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낮다.
  - ②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얇다.
  - ③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은 적다.
  - ④ 페루 연안에 용승 현상이 강하다.
  - ⑤ 무역풍이 강하다.

- ✓ 해수면 높이 편차 자료입니다. 역시 엘니뇨부터 고려합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997\\_El\\_Nino\\_TOPEX.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997_El_Nino_TOPEX.jpg) →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만.

# 4 Near the Pacific Equator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11. 그림은 동태평양 페루 연안 해역에서 플랑크톤 양과 수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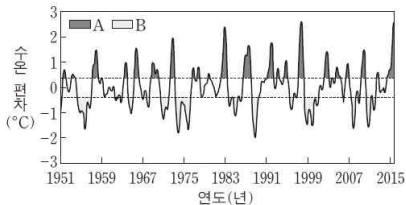


이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 강수량은 (나)보다 (가)일 때 더 많다.
  - ㉡. 영양 염류의 양은 (가)보다 (나)일 때 더 많다.
  - ㉢. 남동 무역풍은 (가)보다 (나)일 때 더 강하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 ✓ 플랑크톤 양도 있지만 가장 기본인 표층 수온을 제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9.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관측 수온 - 평균 수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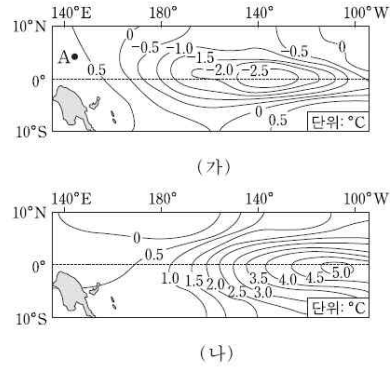


B와 비교했을 때 A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 무역풍의 세기가 강하다.
  - ㉡. 평균 해수면이 높다.
  - ㉢.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 ✓ 수온 편차를 보면 대략 -0.5°C ~ 0.5°C 구간은 제외했습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18번

18.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는 (관측값 - 평년값)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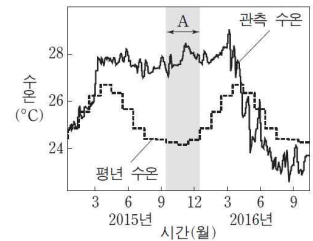
- <보기> —
- ㉠. (가) 시기에 A 해역의 강수량 편차는 (+) 값이다.
  - ㉡. (나)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 편차는 (-) 값이다.
  - ㉢.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나) 시기가 (가) 시기 보다 강하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 ✓ (나)를 엘니뇨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가)를 살펴보니...오? -0.5°C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0.5°C보다 낮으니 라니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EBS해설에서도 (가)를 라니냐라고 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12번

12.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관측 수온과 평년 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A 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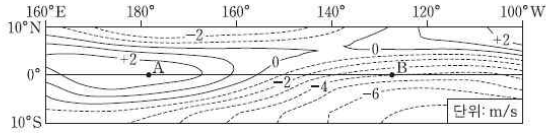
- <보기> —
- ㉠. 강수량이 적다.
  - ㉡. 해수면이 높다.
  - ㉢. 표층에서 영양 염류의 양이 많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 ✓ 역시 수온 편차가 0.5°C를 훌쩍 넘습니다. 깔끔하게 엘니뇨.  
앞서 설명했듯, 지속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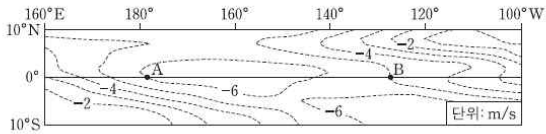
# Near the Pacific Equator 5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19.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바람의 동서 방향 풍속을 나타낸 것이고, (+)는 서풍, (-)는 동풍에 해당한다.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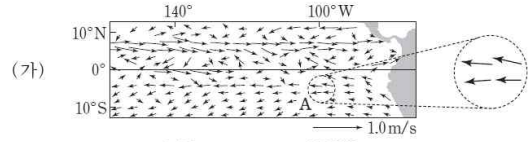
- ㄱ. (가)의 풍속과 (나)의 풍속의 차는 해역 A가 B보다 크다.
- ㄴ. 해역 A와 B의 표층 수온 차는 (나)보다 (가)일 때 크다.
- ㄷ. 무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승 기류는 (나)보다 (가)일 때 더 동쪽에 위치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KICE 문항 중 처음으로 등장한 바람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특히 문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봐오던 그 감시 구간으로 판단하지만 왠지 애매해보입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라고 지점을 정해줍니다. 이 문항에선 B네요. 역시 EBS해설도 동태평양의 자료로 근거를 들었습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14. 그림 (가)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표층 해류의 평년 속도를, (나)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일어난 어느 시기 표층 해류의 속도 편차(관측 속도 - 평년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A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해류는 평년보다 약하다.
- ㄴ. 해수면은 평년보다 높다.
- ㄷ.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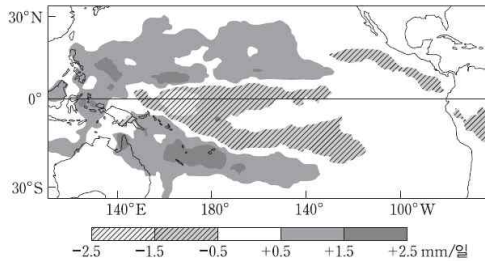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알다시피 표층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태평양 남반구 부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 2020학년도 9월 19번에서 밝히겠습니다.

# 6 Near the Pacific Equator

2018학년도 수능 14번

14.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의 강수량 편차 (관측값 - 평년값)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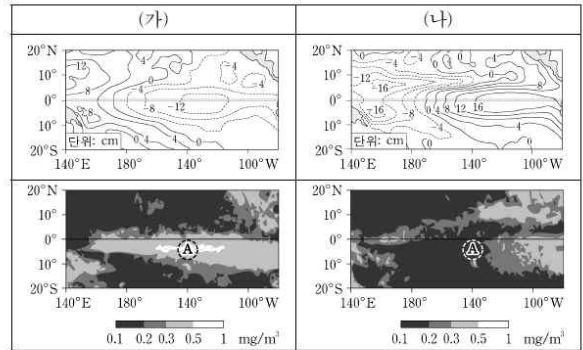
이 자료에 근거해서 평년과 비교할 때,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강수량 편차가 +0.5mm/일 이상인 해역은 주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
  - ㄴ.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크다.
  - ㄷ. 남적도 해류가 강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 대강 보면 동태평양으로 판단하기 애매한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엘니뇨인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감시 구역을 보면 분명히 강수량 편차는 음수값을 갖습니다. EBS해설 역시 이 구역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 판단 구역의 끝을 페루연안이 아니라 남아메리카까지도 보자고 설정했음을 기억해주세요. 대륙은 애초에 NINO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판단했어야 합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19. 표의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해수면 높이 편차 (관측값 - 평년값)와 염록소 a 농도 분포를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로 구분하여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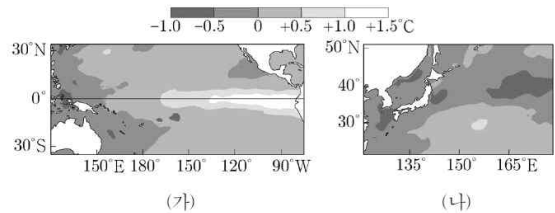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 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
  - ㄷ. A 해역의 염록소 a 농도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보이십니까? 해수면 높이 편차도 그 감시 구역으로 판단되고 140°W, 5°S에 A라고 지점 잡아준 것이.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13. 그림 (가)는 북반구 여름철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관측값 - 평년값)를, (나)는 이 시기에 관측한 북서태평양 중위도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평년과 비교할 때,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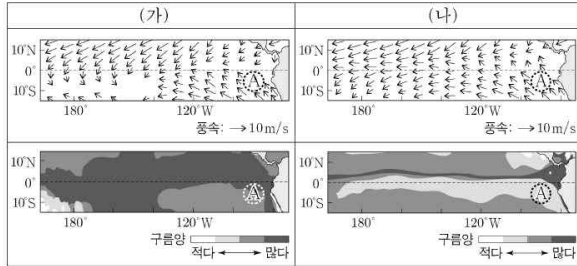
- < 보 기 >
- ㄱ. 동태평양 적도 부근 연안에서는 가뭄이 심하다.
  - ㄴ.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강하다.
  - ㄷ.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낮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다를 것이 없습니다. no comment.

# Near the Pacific Equator 7

2019학년도 수능 12번

12. 표의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바람과 구름양의 분포를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로 구분하여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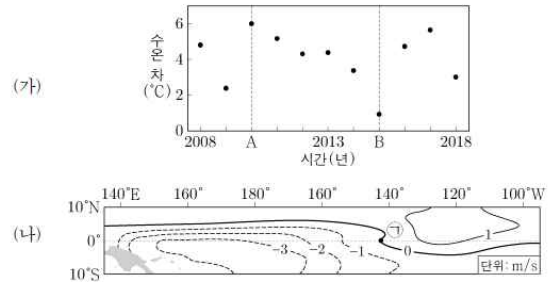
- ㄱ.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구름양은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많다.
- ㄴ.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 ㄷ. 남적도 해류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 A 지점을 잡아 줬습니다. 대략 NINO1+2로 보입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19. 그림 (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겨울철 표층의 평균 수온 차(서태평양 수온 - 동태평양 수온)를, (나)는 (가)의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의 동서 방향 풍속 편차(관측값 - 평년값)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나)는 A에 해당한다.
- ㄴ. 상승 기류는 (나)의 ㉠ 해역에서 발생한다.
- ㄷ.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는 A가 B보다 크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일단 계속해서 그 구간으로 엘니뇨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항은 그보다 풍향에 대해 낫선 표현을 사용해서 괜히 채감 난도가 올라간 녀석입니다.

앞에 2018학년도 9월 14번에서 언급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항은 그 구간으로 정확하게 풀리지만

이처럼 일부 문항은 NINO4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항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시 한 번, 1. FACT로 기준 잡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엘니뇨&라니냐 문항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깔끔하게 푸시길.

+ α

뒤에는 이 칼럼에 담긴 모든 문항의 정답과

2013 ~ 2019년 7월까지 교육청 모의고사 모든 문항을 검토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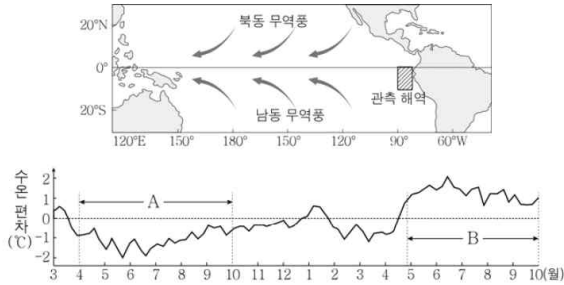
KICE 문항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4개의 선별 엘니뇨&라니냐 문항이 있습니다. 적용ㄱㄱ!

# 8 Near the Pacific Equator

2015학년도 3월 교육청 10번

10. 그림은 어느 해 3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동태평양의 빗금 친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관측 수온 - 평균 수온)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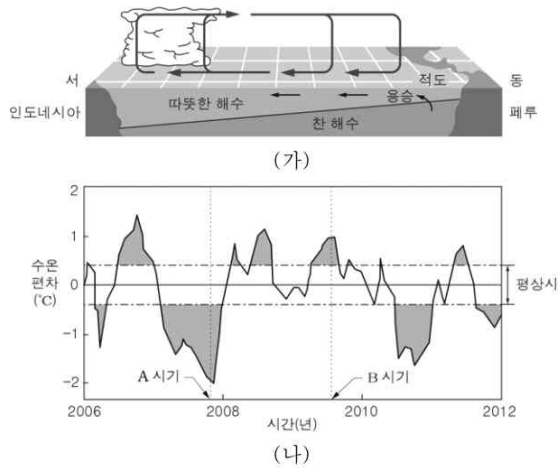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관측 해역의 해수면 수온은 A 기간보다 B 기간에 높았다.
  - ㄴ. 무역풍의 세기는 A 기간보다 B 기간에 강했을 것이다.
  - ㄷ. A 기간에 엘니뇨가 발생했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5학년도 4월 교육청 14번

14. 그림 (가)는 평상시 태평양 적도 부근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연직 단면을, (나)는 동태평양의 엘니뇨 감시 해역에서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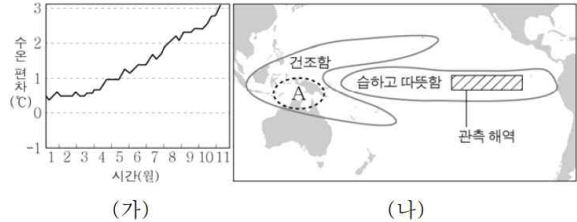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시기에는 라니냐가 발생했다.
  - ㄴ. 인도네시아 연안의 강수량은 B 시기가 평상시보다 많다.
  - ㄷ. 페루 연안에서의 용승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6학년도 3월 교육청 15번

15. 그림 (가)는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를, (나)는 (가)를 바탕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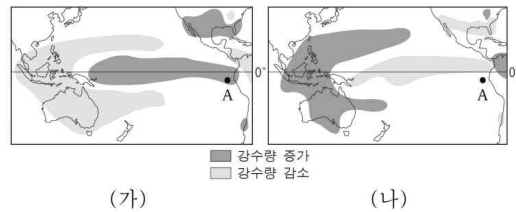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2015년에 엘니뇨가 발생했다.
  - ㄴ. 2015년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했을 것이다.
  - ㄷ. 2016년 초에 A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8학년도 4월 교육청 15번

15.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강수량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가)의 시기에 A 해역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다.
  - ㄴ. (나)의 시기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강하다.
  - ㄷ. A 해역의 용승은 (가)보다 (나)의 시기에 활발하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Near the Pacific Equator 9

정답

- 4
- 2
- 5
- 3
- 5
- 4
- 1
- 2
- 3
- 4
- 5
- 1
- 2
- 2
- 3
- 1
- 4
- 5
- 5

칼럼 작성자 : 스바냐 (Orbi닉네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 I 50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 I 50점  
참장 - 지구과학 I 편지

<구매하는 곳!>

<https://docs.orbi.kr/docs/6032-%EC%B9%A8%EC%9E%A0+%EC%A7%80%EA%B5%AC%EA%B3%BC%ED%95%991/>